

해운대백병원-딥노이드, AI연구 업무협약

뇌혈관질환 인공지능 솔루션 DEEP:NEURO 실사용 협력

양보혜 기자 (bohe@dailymedi.com)

2024.01.10 19:10



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(원장 김성수)은 국내 1세대 의료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노이드(대표 최우식)와 뇌혈관질환 인공지능(AI) 솔루션 DEEP:NEURO 실사용을 위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AI 기반 진단 연구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.

딥노이드는 DEEP:NEURO를 해운대백병원 의료진이 뇌동맥류 진단 보조 및 임상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.

해운대백병원 의료진은 DEEP:NEURO를 통해 임상연구를 진행하며, AI 기반의 뇌동맥류 진단 연구를 활성화한다.

또 양사가 갖춘 전문성 및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번 협약이 진단 분야의 실질적인 사용으로 이어져 의료 AI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DEEP:NEURO는 혁신의료기술로 의료 현장에서 진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임상 연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.

뇌 MRA 영상에서 AI를 활용해 뇌동맥류를 검출하고 진단을 보조하는 솔루션으로, 뇌동맥류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며, 진단 시간을 크게 단축해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높일 전망이다.

김성수 원장은 "실제 의료현장에서 DEEP:NEURO뿐만 아니라 다른 솔루션들의 사용도 확대돼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높일 기회가 되면 좋겠다"고 전했다.

Daily**medi**양보혜 기자 (bohe@dailymedi.com)

저작권자 ©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